

복귀 준비하는 KIA 이의리, 신인왕 경쟁 다시 뜨거워질까

데뷔 첫해 94㉵이닝 책임지며 선발 한 축 담당

부상 중 ‘중고 신인’ 롯데 최준용 경쟁자로 등장

이의리(19·KIA 타이거즈)가 돌아오면서 신인왕 경쟁이 한층 뜨겁게 타올를 전망이다.

2021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을 받아 KIA 유니폼을 입은 이의리는 시즌 내내 신인왕 경쟁에서 가장 앞서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즌 개막부터 꾸준히 기회를 받으며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한 이의리는 올 시즌 19경기에서 4승 5패 평균자책점 3.61의 성적을 거뒀다.

승수는 많지 않지만, 프로 데뷔 첫해에 94%이닝을 던지면서 KIA 선발진의 한 축을 책임졌다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막 이후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한 신인은 이의리가 유일했다. 시즌 개막부터 1군에서 특정 보직으로 지키며 꾸준히 활약한 투수도 없고, 야수 중에서도 풀타입 주전으로 뛰고 있는 신인은 눈에 띄지 않는다.

빠어난 구위를 앞세워 인상깊은 장면도 적잖게 연출했다. 4월 28일 광주 한화 이글스전과 6월 16일 광주 SSG 랜더스전에서는 개인 한 경기 최다인 10개의 삼진을 잡아내기도 했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2020 도쿄올림픽 대표팀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신인왕 레이스에서 사실상 독주를 펼치는 듯 보였던 이의리는 부상 압조를 만나 멈춰섰다.

이의리의 1군 등판은 8월 12일 광주 NC 다이노스전에 마지막이다. 당시 등판 후 손톱이 깨진 이의리에게 더 큰 부상 악재가 닥쳤다. 9월 22일 홈 구장에서 훈련을 마친 뒤 더그아웃으로 들어오다 계단에 미끄러져 오른 발목 인대를 다쳤다.

발목 부상 이후 이의리가 정규시즌 종료 전 복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의리가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

나있는 사이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 롯데 자이언츠 필승조로 자리매김한 최준용이다.

최준용은 2020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롯데에 1차 지명을 받은 ‘중고 신인’이다. 지난해 신인왕 자격 조건인 투수 30이닝에 아웃카운트 1개가 부족한 29%이닝을 던져 올해 신인왕 후보 자격이 된다. 전반기 최준용의 성적은 2승 1패 평균자책점 4.42로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후반기부터 매서운 질주를 펼쳤다. 25경기에 등판해 25이닝을 던지면서 1승 1패 1세이브 12홀드를 챙겼다. 후반기 평균자책점은 1.80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8월 11일 창원 NC전부터 이달 15일 사지 LG 트윈스전까지 23경기 연속 비자책 행진을 펼쳤다.

역대 신인상을 받은 불펜 투수 중 최다 홀드 기록은 2007년 임태훈(당시 두산 베어스)이 기록한 20홀드. 19홀드를 거둔 최준용은 이에 근접하면서 신인왕 기대를 키웠다.

하지만 이의리의 시즌 내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분위기가 또 달라지고 있

다. 빠른 회복세를 보인 이의리는 15일 라이브 피칭에 나서 50개의 공을 던졌다. 맷 윌리엄스 KIA 감독은 “재활 과정이 순조롭다”고 전했다.

이의리는 불펜 투구를 거친 뒤 몸에 이상이 없으면 복귀 일정을 잡을 전망이다.

KIA는 오는 23일 NC와 더블헤더가 예정돼 있어 이번주에 7연전을 치러야 한다. 이의리가 이번주 내에 복귀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최근 몇 년 동안 확고한 신인왕 후보가 있었다. 2017년 이정후, 2018년 강백호, 2020년 소병준 등은 이들의 신인왕 수상 여부보다 만장일치 수상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올해에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의리의 시즌 막판 복귀로 신인왕 레이스는 시즌 끝까지 갈 가능성이 커졌다.

구단 입장에서 신인왕 배출은 간절하다. KIA가 신인왕을 배출한 것은 전신 해태 시절인 1985년 이순철이 유일하다. 롯데 선수가 신인왕을 받은 것은 1992년 엄중석 뿐이었다.

뉴시스



불혹의 오승환, 삼성 우승 도전 이끈다

후반기 24경기서 16세이브 평균자책점 1.17 맹활약

6년 만에 가을야구 초대장을 쥔 삼성 라이온즈의 시선은 더 높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 1위 KT 위즈(승률 0.579)에 1.5게임 뒤진 2위(승률 0.566)에 올라 역전 우승의 꿈이 부풀고 있다.

삼성의 진격에서 ‘끝판왕’ 오승환(39·삼성)을 빼놓을 순 없다.

올해 우리나라의 마흔 살인 오승환은 불혹에도 전성기 못지않은 기량을 뽐내고 있다.

오승환은 이번 시즌 61경기에서 2패 43세이브 평균자책점 1.99를 기록 중이다. 불문세이브는 단 한 번뿐이었다.

세이브 2위 김원중(롯데 자이언츠·33세이브)을 멀찌감치 따돌리면서 사실상 세이브왕도 확정했다.

지난해 시즌 중 팀에 합류, 45경기

3승2패2홀드 18세이브 평균자책점 2.64를 거뒀을 때와 비교해도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해는 불문세이브도 4차례 있었다.

오승환이 남다른 안정감을 선사하면서 삼성의 뒷문도 더욱 든든해졌다. 후반기 승률 1위(0.560)를 달리는 삼성은 이 기간 7회까지 앞선 경기에서 21승1무를 기록,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전반기 37경기에서 2패27세이브 평균자책점 2.52를 작성했던 오승환은 후반기 24경기에서 16세이브 평균자책점 1.17을 마크했다. ‘오승환이 등판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자신감 넘치는 공식이 다시 팀에 자리 잡았다.

시즌 막바지 순위 싸움의 승부처에서 보여주는 철벽투는 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는 지난 한 주간 팀의 7경기 중 5경기에 등판, 모두 세이브를 챙겼다. 지난 16일에는 키움 히어로즈와 더블헤더 2경기에서 모두 세이브를 수확하기도 했다.

야구통계전문업체 스포츠투아이에 따르면 ‘주간 5세이브’ 기록은 KBO리그 역대 4번째 전기기록이다.

1이닝 이상을 책임지는 경우도 적

지 않다. 최근 10경기 중 3경기에서 1%이닝씩을 소화했다.

오승환이 뒤를 확실하게 받쳐주면서 삼성은 잡아야 할 경기를 놓치지 않고, KT를 사정없이 두게 됐다.

이제 삼성은 정규시즌 단 7경기만을 남겨뒀다. ‘나이를 잊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오승환과 함께 막판 대역전을 향한 도전도 끝까지 계속된다.

영광공고 배재홍, 제102회 전국체전 은메달 획득

태권도 男고등부 54kg급

영광군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경상북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 태권도 전남 대표로 출전한 영광공고 3학년 재학중인 배재홍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하

였다고 밝혔다.

경북 영전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경기에 남자 고등부 54kg급으로 출전한 배재홍 선수는 각 지역 쟁쟁한 대표 선수를 이기고 결승전 끝에 은메달을 획득했다.

배재홍 선수는 전남 태권도 유망

주로서 영광중, 영광중 재학 중에도 전국 소년체전 등 전국단위 체육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여 지역 명예를 드높이기도 했다.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대회가 취소되면서 선수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상황에서 이번 전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베이징 트랙 처음 타 본 윤성빈 “난이도 높진 않아”

“13번 커브·직진 구간 까다로워”
“중국 선수들 한 번도 못 봤다”

‘아이언맨’ 윤성빈(27·강원도청)이 2연속 올림픽 메달 도전 장소인 베이징 트랙에 대해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까다로운 구간이 있다”고 평가했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썰매 종목 경기가 열릴 중국 베이징 외곽의 연칭 슬라이딩센터에서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국제훈련주간에 참가 중인 윤성빈은 19일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이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베이징 트랙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한국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은 베이징올림픽이 열리는 연칭 슬라이딩센터 적응을 위해 지난 5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대표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트랙을 처음 경험했다. 다른 국가의 선수들도 처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연칭 슬라이딩센터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새롭게 지어진 트랙이다. 보통 썰매 종목 선수들은 올림픽 개최 1년 전 치러지는 테스트 이벤트를 통해 트랙에 적응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돼 기회가 없었다.

7일부터 연칭 슬라이딩센터에서 레이스를 펼친 윤성빈은 “사건으로 접했을 때 트랙이 전체적으로 엄청 크고 긴 느낌이었다. 와서 보니 사진에서 본 그대로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성빈은 “보기와는 다르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잘 적응하고 있다”면서 “새로 지은 만큼 전체적인 시설은 트랙 중 최고인 것 같다”고 말

했다. 360도 원형으로 커브를 도는 ‘크라이슬 구간’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윤성빈은 “의외로 크라이슬 구간은 어렵지 않았다”면서 까다로운 구간으로 13번 커브를 꼽았다.

중국 선수들은 이미 자국 트랙에서 엄청난 주행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윤종은 앞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중국 선수들이 300회 이상 주행을 해봤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훈련주간에 중국 선수들은 다른 국가 선수들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썰매 종목에서 누릴 수 있는 홈 이점을 극대화하려는 생각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스켈레톤에서 한국 썰매 사상 최초의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한 윤성빈은 “중국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정보도 따로 들은 것이 없다”며 “우리



도 평창을 립 픽을 준비할 때 다는 나라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베이징 트랙’을 경험하고도 올림픽이 아직 실감이 나지는 않는다는 윤성빈은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으니 효율적으로 훈련하겠다”며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 남자 봅슬레이의 ‘간판’ 원윤종(36·강원도청)은 “트랙이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아 어떻게 가속을 붙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된다”며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라인을 찾아야 해 스트레스도 받는다”고 토로했다.

‘허웅·DB발’ 오빠부대 다시 불리어나

원주 흥경기 입장권 예매는 전쟁…2~3분 만에 매진

강원도 원주시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농구 DB의 인기 바람이 대단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유관중 전환에 맞춰 간판선수 허웅(28)을 앞세운 DB가 전국구 인기몰이를 예고하고 있다.

하계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장남 허웅은 비시즌 가장 핫한 선수였다. 훈훈한 외모에 기량이 일취월장했다. 몇 차례 방송을 통해 얼굴을 알리면서 ‘체육관 밖’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홈구장인 원주종합체육관 전체 수용인원의 20%(820명)만 입장이 가능한데 표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입장권 오픈 2~3분 만에 매진된다. 구단은 “골대 뒤나 코트가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는 원래 표가 팔리지 않는 곳인데 이제는 다 팔린다”고 했다.

타 구단과 비교해 가장 빠른 매진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표를 다 팔지 못하는 팀도 있다. 특히 지난 3월 MBC 예능 ‘놀면 뭐하니’ 방송이 나간 후, 관심이 뜨거워졌고, 비시즌 아버지, 동생 허훈(KT)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면서 급격히 바람이 불었다.

지난 시즌 막판 서서히 팬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이번 시즌 관심도가 한층 더 높아졌다는 게 구단의 설명이다. 20대 후반~30대 초반의 구매력 높은 여성 팬들이 주를 이룬다.

온라인 사용에 서툴러 예매를 못하거나 충성도가 높은 연고지의 고령 팬

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먼저 입장권 구매가 가능한 멤버십 회원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했는데 이마저도 상당 부분을 흡수했다.

시즌 개막과 데뷔 7주년에 맞춰 지난 10~12일에는 팬들이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의 대형광고판과 주광방송사에 동영상 광고를 실었다.

구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인기도 덩달아 상승했다. 허웅 관련 영상의 경우, 조회 수가 20~30만회를 상회한다. 다른 선수들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는 중이다.

중위권으로 평가받던 DB는 3승1패로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17일 대구 한국가스공사전에선 패했지만 24점차 열세를 따라잡는 저력을 보여줬다.

허웅은 4경기에서 평균 18.5점 3.8 어시스트 평균 3점슛 2.8개로 데뷔 후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구단은 지자체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다. 원주시와 DB는 지자체와 프로구단의 협력이 잘 이뤄지는 모범 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시는 지난 2013년 총 사업비 500억 원을 투입해 원주종합체육관과 클럽하우스를 새롭게 건립했다.

인기 바람에 힘입어 탄력을 받는다. 시와 구단의 공동 마케팅과 레거시(유산) 형성, 시 브랜드 홍보 등을 기대하며 시 주관으로 시티에디션 유니폼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뉴시스

로저 페더러, 4년 7개월만에

세계랭킹 10위권 밖으로 밀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40·스위스)가 4년 9개월만에 남자프로테니스(ATP) 단식 세계랭킹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18일자(한국시간) 세계랭킹에 따르면 페더러는 지난주 9위에서 11위로 떨어졌다. 페더러의 ATP 단식 세계랭킹이 10위 아래로 내려간 것은 무려 부상(2016년 11월~2017년 1월)으로 인해 17위로 떨어진 이후 4년 9개

월만이다. 또다시 무릎 부상을 당한 페더러는 7월 뮌헨 8강 탈락 이후 2020 도쿄올림픽과 US오픈에 나서지 못했고,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 닥일 메드베드프(러시아), 스테파노스 치치파스(그리스), 알렉산더 조비예프(독일)는 여전히 1~4위 자리를 지켰고,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5위로 올라섰다. 권순우(당진시청)는 56위를 유지했다.